현대 국어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비교 고찰

양 영 희 (전남대)

< 목 차 >

1. 머리말
2.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비교
3.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의는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역으로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점검해 보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에는 최근에 관찰되기 시작한 특정 언어 현상을 역문법화로 규정하면서 막연하게 '문법화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문법화와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태도에 대한 필자 나름의 견해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내린 결론은 먼저 역문법화는 거시적으로 문법화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면은 공통되지만, 이 두 언어 현상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문법화는 대부분이 단선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문법 형태가 하나 이상의 문법화의 연쇄를 일으킴에 비하여 역문법화는 단선적인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둘째, 문법화는 언중들이 어떤 두 언어 형식을 연접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이 두 형식을 단일한 단위로 인식함으로써 생성되지만 역문법화는 이와 반대로 자주 연결되어 사용되는 두 언어 형식을 단절하거나 분리시킴으로써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문법화는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어휘적 의미에서 추상적이고 문법적인 의미로 변함에 비하여 역문법화는 이러한 의미적 변화

www.kci.go.kr

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제어: 문법화, 역문법화, 진행 방향, 의미 변화, 생성 기제, 단선적 방향, 다중적 연쇄

1. 머리말

일반적으로 문법화는, 어휘형태소가 문법형태소로 변하거나 통사론적 구조가 형태론적 구조로 진행하는 언어 현상으로, 역문법화는 이에 역행하는 언어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1] 그만큼 이들을 밀접한 관계로 인식한다는 의미

1) 사실 (역)문법화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참고로 몇 가지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법화
ㄱ. 독립한 자립적인 낱말로 쓰이던 것이 그 자격을 잃어버리고 의존적인 어휘 혹은 문법적인 요소로 변하는 것.(고영진 1997: 30)
ㄴ. 실질 형태소가 의존 형태소로 변하는 현상 (이태영 1988=1993: 13)
ㄷ. 어휘 의미를 가지고 자립적으로 기능을 하던 것이 문법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안주호 1997: 15)
ㄹ. 어휘적 의미를 지니던 요소가 문법적 의미를 지니던 요소로 전환되는 것을 포함하여, 문법적 의미가 덜한 것이 문법적 의미가 좀더 강한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 (강희숙 2012: 64, 김문기 2007: 204)
ㅁ. 어휘적 의미가 문법적인 의미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공시적인 관점의 문법화(grammaticization)와 통시적인 관점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문법화는 통시적인 관점을 취한다. (이정민 2011: 4)
ㅂ. 어떤 변화 과정에 있는 단어가 본래의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 단어들의 어휘적 의미들과의 연계를 보존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가 서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 (이정애 1998: 87)

www.kci.go.kr

이다. 역문법화라는 개념 자체가 문법화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본고의 논의는 이런 물음에서 출발한다.

주지하듯이 문법화는 범언어적인 현상으로 우리 학계에서도 1900년 후반부터 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2] 이에 비하여 역문법화에 대해서는 문법화와 관련선상에서 최근에야 단편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문법화와 관련되고, 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역문법화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형성되었으므로 이런 비교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역문법화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기도 하려니와 문법화와 관련성을 막연하게 유추하기보다 검증의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 역문법화는 물론이고 문법화의 특징까지도 보다 명확하게 파악될 터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금까지는 이들의 관련성을 막연하게 추정하는 단계였던 것이다. 여기에 반성의 여지가 있다.

ㅅ. 문법화는 역사적 변화 과정에 근거한 통시적 결과물로서 그 변화의 유형은 어휘 형태소의 의미가 추상화되어 문법 형태소로 되는 것과 통사론적 구성이 형태론적 구성으로 재구조화되는 언어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분포와 의미 단위의 변화를 수반한다. (백낙천 2007: 317)

나 역문법화

ㄱ. 문법화의 반대 방향으로서의 역문법화 현상은 … (안주호 2002: 28)

ㄴ. 역문법화는 문법화의 연쇄 경로와 반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 (강희숙 2012: 66)

ㄷ. 문법화의 방향성에서 벗어나는 '탈문법화' 현상으로 … (노명희 2013: 130)

2) 비문법화란 용어로 문법화에 관심을 보인 것은 고영근(1989)이다. 그러나 문법화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접근한 업적으로는 이태영(1988=1993), 안주호(1997), 고영진(1997) 등이다. 이 외에 단편적인 언어 현상에 대한 문법화를 연구한 김용경(2002), 임동훈(2008), 이승연(2010), 이정민(2001), 허재영(2000) 등이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국어 문법화 연구는 190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www.kci.go.kr

필자 역시 이런 태도로써 그동안 (역)문법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어설프게나마 이들은 언어 사용의 '변화(천)'라는 공통점을 기본 전제로 하여 몇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생각에 도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한다.

2.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비교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자 나름대로 (역)문법화를 정확하게 정의하여 이로써 해당 목록을 결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견해들 가운데 공통된 입장을 수용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다.[3] 정의나 목록화 작업들은 기회를 달리 하여 접근해야 할 무게 있는 주제로 간주되는 까닭에 섣불리 다루다 보면 본 논의만 산만해질 뿐 아니라 주제 자체가 호도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역)문법화의 정의를 (1)처럼 규정하고 해당 예를 (2)로 한정하고자 한다.

(1) (역)문법화 정의
가. 문법화: 어휘형태가 문법형태로 변하는 과정
나. 역문법화: 문법형태가 어휘형태로 변하는 과정

(2) (역)문법화 목록
가. 문법화: 만, 대로, 만큼, 만치, 뿐(더러), 밖에, 들, 든지, 나마/ 데, 듯이, 바, 지, 망정, 든지
나. 역문법화: 때문에, 나름(대로), 딴(은) / 꾸러기/ 초, 왕, 개/ 님, 씨[4]

---

3) 기존 논의는 각주 (1)을 참고하기 바란다.

4) 본문에서 밝혔듯이 (역)문법화의 정의는 각주 (1)에 소개한 기존 입장을 토대로 하였다. 그리고 목록은 안주호(1997, 2002), 고영진(1997), 노명희(2013), 강희숙(2012), 2013),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 등에서 공히 (역)문법화로 인정한 언어 형식으로 한정하였다. 그럼으로써 논지의 객관성과 논지 전개의 수월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필자의 관점으로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목록

www.kci.go.kr

2.1. 진행 방향

그동안 국어 문법화의 진행은 다음에 제시한 (3.가)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국어 문법 범주를 적용시키는 방향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각주 5 참조).[5]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3.나)의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먼저는 위에서 (역)문법화의 정의와 목록을 기존 입장에 의지하기로 한 이유에서이고, 다음으로는 기존 견해들 가운데 (3.나)가 국어 문법 범주에 입각하여 그 과정을 세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의지하면 설명과 이해의 수월성을 도모할 수 있겠다는 기대에서이다.

(3) 문법화 방향
  가. 문법화의 진행 방향(Hopper& Traugott(1993)
    content item(내용어)> grammatical word(문법어)> clitic(접어)> inflectional affix(굴절접사)
  나. 양영희(2016ㄱ)
    ① 문법화: ① [동사・명사・형용사> 부사]> ② [대명사・관형사> 의존명사・보조동사> 접두(미)사]> ③ [어미> 조사]

을 생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논지가 번다해질 뿐이라는 판단 아래, 이미 검증된 목록을 이용하는 편이 본 주제에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5) 국어 문법화를 범주별로 보인 기존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자립적 어휘소> 의존적 어휘소> 접어> 어미・조사・접미사 (안주호 1997: 39)
  나. 자립어(free word)> 접어(clitic)> 접사(affix) (노명희 2013: 140)
  다. 주범주(명사, 동사) 중간범주(형용사, 부사)> 소범주(접사, 접속사, 관사, 조동사)> 접어> 굴절접사 (강희숙 2012: 66)
  이러한 관점은 (3.가)의 문법 범주를 연구자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의에서는 자립어, 접어, 접사 등과 같은 문법 범주 대신 '명사, 동사, 형용사' 등과 같은 품사를 (역)문법화의 단위로 간주하기로 함을 밝혀 둔다. 그것은 자립어, 접어와 같은 문법 범주는 포괄적이어서 (역)문법화의 진행 방향이나 과정을 미세하게 보여줄 수 없음에 비하여 품사는 그러한 과정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www.kci.go.kr

② 역문법화: ① [어미> 조사]> ② [대명사・관형사> 의존명사・보조동사> 접두(미)사]> ③ [동사・명사・형용사> 부사]

2.1.1. 문법화

문법화는 그동안 (3.나)의 ①과 같은 과정이 단선적이고 단일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단일방향 가설(unidirectionality hypothesis)'이 지배적이었다. 다음 (4)에 제시한 용례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법화가 이 가설에 부합되는 것이 사실이다.

(4) 가. 그 책을 읽는 데 삼일이 걸렸다.
나. 길을 가는데 방해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5) 가. 먹을 만큼 먹어라.
나. 너만큼 나도 잘 한다.

(4)의 '데'는 의존명사(가)에서 어미(나)로, (5)의 '만큼'은 의존명사(가)에서 조사(나)로 진행한 바, 문법화는 이처럼 하나의 언어 형식이 다른 하나의 언어 형식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로써 모든 문법화를 포괄할 수 없다는 '다중문법화(Polygrammaticalization Craig 1991/ 이성하 1998: 141)' 가설이 제기되었다. 즉 문법화는 (4), (5)처럼 단선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하나 이상의 문법화 연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어 문법화에도 이런 가설이 적용됨이 다음 용례에서 확인된다.[6)]

(6) 가. 꼬마는 잘 모르겠다는 듯 눈만 깜박이고 있었다.
나.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다. 어미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듯 <세종>[7)]

6) 이에 대해서는 양영희(2016 ㄱ)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룬바, 여기서는 논지의 대략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면만을 서술하기로 한다. 그럼으로써 논지 전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www.kci.go.kr

(7) 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네
나.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다.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뿐. <세종>

위 (6, 7)의 밑줄 친 '듯'과 '뿐'은 의존명사(6, 7가)와 조사(7.나)·어미(6, 7다)가 공존하는 형태로 문법화의 입장에서는 '의존명사> 조사·어미'로 진행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런 진행이 바로 위의 다중문법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법화의 용례를 모두 포괄하려면 대부분의 문법화는 단선적인 방향으로 단일하게 진행되지만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주로 진행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역문법화는 어떠한가.

2.1.2. 역문법화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선 방향으로의 진행은 역문법화에서도 존재하지만 다중문법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에 제시한 (8), (9)처럼 '의존명사> 명사'로, 혹은 '접두사> 부사'로만 진행하지, 앞서 살핀 (6), (7)과 같이 하나 이상의 문법 범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8) 가. 이 일은 전적으로 너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나. 그러나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유권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한 듯하다. 때문에 돈이 없어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안주호 2002: 35)

(9) 가. 왕개미, 왕모래, 왕고집 <표준>
나. 왕 짜증난다, 왕 재수 없다.

위 (8)은 의존명사(가)인 '때문'이 명사(나)로 진행하는 예이며 (9)는 접두사(가)인 '왕'이 부사(나)로 진행하는 예로, 아직까지 역문법화는 이처럼 단선적인 방향으로 단일하게 진행한 경우만이 관찰된다. 이상의 점들을 참조하면

7) 여기의 <세종>은 <세종 말뭉치 시스템>의 약호이다. 이후에 사용할 <표준>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약호임을 미리 밝혀둔다.

www.kci.go.kr

문법화와 역문법화는 단선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공통점을 기본으로 하여 전자는 연쇄적인 방향으로도 진행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레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즉 어떤 언어 형식에서 출발하든지 문법화의 도착점은 조사나 어미이다. 그런데 이들은 실사에 첨가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주목하면 '조사(어미)=어미(조사)인데, 다만 선행하는 언어 형식에 따라 문법 범주를 분별하였다'는 가정이 성립한다. 조사와 어미는 공히 실사에 첨가하여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형식인데, (대)명사를 선행하느냐 동(형용)사를 선행하느냐에 따라 조사와 어미로 구별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의 기본 기능은 같다. 그러므로 조사와 어미를 '토'로 통칭하는 관점도 형성되었을 터이다. (6), (7)의 '듯'과 '뿐'이 의존명사에서 조사(나)·어미(다)로 연쇄적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찾아진다. 즉 의존명사가 문법화를 진행시킴에 있어 조사와 어미는 기본 기능이 같기 때문에 이들의 기능을 동시에 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역문법화는 그렇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이 진행될수록 형식과 의미는 자립성과 구체성을 띠게 되므로 다른 언어 형식과 구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특정 기능을 공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까닭이다. 기능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역문법화는 '접두사> 관형사' 혹은 '접미사> 의존명사'로 진행할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역문법화의 결과인 관형사·의존명사가 접두(미)사에 비하여 의미상으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까닭에[8] 이들과 기능을 공유할 언어 형식이 존재하기란 쉽지 않다.

8) 사실 의존명사도 명사나 대명사에 비하여 의미가 자립적이고 독립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접두(미)사에 비하여서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라 할 만한데, 그것은 이들이 선(후)행하는 성분과의 독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존명사는 명사에 비하여 비자립적이고 의존적이지만 선행 성분과 띄어 쓸 수 있지만, 접두(미)사는 후행 성분과 띄어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성분과만 결합하여 특정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으로 보면 의존명사가 접두(미)사에 비하여 의미의 자립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만하다.

www.kci.go.kr

이 점이 바로 문법화와 달리 역문법화에 다중문법화 현상이 없는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법화의 특징으로 인정되었던 단일방향 가설은 도리어 역문법화에 더 합당하다는 역설적인 생각에 도달한다.

2.2. 생성 기제

문법화와 역문법화가 생성되는 기제는 무엇일까. 필자가 과문해서이겠으나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인 업적은 파악되지 않았다.[9] 이에 본 논의에서 (역)문법화의 생성 배경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여, 여기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2.2.1. 문법화

언중들은 어떤 언어 형식을 자주 연결하여 사용하다 보면 그것을 단일한 단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이 관형사형 'ㄴ, ㄹ'에 의존명사를 결합시켜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언중들은 이들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10) 가. 집을 떠나 온 지 어연 3년이 지났다. <표준: 의존명사>
나. 마을 사람들은 어느 말을 정말로 믿어야 옳은지 몰라서 멀거니 두 사람의 입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표준: 연결어미>

(11) 가.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일이 걸렸다. <표준: 의존명사>
나. 저승 사자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법 나이 사십이 넘었는데도 온갖

9) 서구 언어학에서는 문법화의 기제를 은유, 환유, 비유, 제유 등의 수사학적 기법으로 이해한다(이성하 1998 참조). 그런데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수용하는 대신 '연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런 태도는 역문법화도 마찬가지여서, 지금까지 역문법화 기제는 '재분석'이나 '오분석'등으로 명명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단절'과 '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어가 본 논의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한 것인지는 더 생각해보아야 할 면이 없지 않은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듬기로 한다.

www.kci.go.kr

잡되고 못된 짓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망나니가 어느 날 달빛 아래 구부정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무게 없는 텅빈 삶에 한숨을 짓고 있었다. <세종: 연결어미>

(12) 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표준: 의존명사>
나. 근년에도 143세의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세종: 연결어미>

위의 '지·데·바' 등은 '의존명사(가)> 어미(나)'로 진행한 문법화의 일례로 간주되는 형식들이다. 모든 의존명사가 어미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필자가 인식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형식 즉, 관형사형 어미 'ㄴ, ㄹ'을 선행하는 의존명사의 경우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다 보니 'ㄴ/ㄹ+ 지(데·바)'의 구조를 'ㄴ/ㄹ지(데·바)'와 같은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게 되어서 연결어미로 자리매김한 결과 문법화로 인정받기에 이른 듯하다.[10]

이처럼 언중들의 태도가 특정 언어 형식의 기능을 바꾼 경우는 (12)의 '바'와 다음에 제시한 용례들에서도 찾아진다. 먼저 '바'는 현행 맞춤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의존명사'의 기능만이 인정되다가 현행 맞춤법에서 '연결어미'의 기능을 첨가하여 띄어쓰기를 달리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러한 진행을 견인한 것은 'ㄴ/ㄹ+바'를 'ㄴ/ㄹ바'라는 한 단위로 인식하는 언중들의 언어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다음의 '밖에, 뿐더러' 등은 이런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10) 여기에 '지·데·바' 등이 단음절어라는 점이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국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2~3 글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단음절어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는 언중들은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행 <한글 맞춤법 제46항>에서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마련하기도 한 것이다. 언중들의 이런 태도가 'ㄴ, ㄹ'과 '바·지·데'를 연결하여 결국에는 'ㄴ/ㄹ바·ㄴ/ㄹ데·ㄴ/ㄹ지' 등의 연결어미를 생성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봄직하다.

www.kci.go.kr

(13) 가. 보고픈 마음 호수만하니 눈 감을밖에
나.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네.

(14) 가. 선생님이 시키는데 할밖에./어른들이 다 가시니 나도 갈밖에./자식들이 속을 썩이니 어머니가 저렇게 늙으실밖에.<표준>
나. 그저 내 일을 하면 그뿐./ 더 말할 필요가 없을뿐.

허재영(2002)에서는 (13.가)를 국어교과서에서 띄어쓰기를 잘못한 예로 간주하였다. '밖'을 의존명사로 인식한 것이다. 박승윤(1997)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밖'은 '명사> 의존명사> 조사'로 진행한 까닭에, (가)의 그것을 허재영(2002)처럼 '의존명사'로 보아도 합당하다. 어쩌면 그 때에는 의존명사로만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재 <표준>에서는 (14.가)를 용례로 들면서 종결어미로 처리하였다. '밖'이 '조사> 어미'로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바, 이렇게 진행한 이유 역시 'ㄴ/ㄹ+밖에'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ㄴ/ㄹ밖에'로 인식하게 된 언중들의 태도에서 비롯한다고 하겠다.[11] 요컨대 언중들의 언어 습관이 새로운 기능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의 '뿐'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추정의 개연성은 다음의 '만큼・뿐・대로' 등에 대한 띄어쓰기 혼란에서도 찾아진다.

(15) 가. 오는 대로 오거라.
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16) 가. 먹을 만큼 가져오지, 너무 많이 가져왔다.

---

11) 강희숙(2013: 199~200)에서는 다음의 예들은 '관형사+ 명사'의 구조로 보아야 하는데, 현대 합성명사로 잘못 이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인상, 첫사랑, 첫가을, 첫국밥/ 새것, 새날, 새달. 옛길 옛날

필자는 여기서도 언중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형식을 한 단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www.kci.go.kr

나. 너만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다.

위의 '대로'와 '만큼'은 '의존명사(가)> 조사(나)'로 진행하는 문법화로 인정되어 온 형식들로 이들에 대한 언중들의 띄어쓰기 혼란은 앞서 살핀 '지·데·바'에 비견된다. 일반적으로 혼란의 원인을 조사와 의존명사의 동일한 형식으로 간주한다. 즉 '대로'라는 동일한 형식을 때로는 띄어써야 하고 때로는 붙여 써야 하는 까닭에 언중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형식의 동일성이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에 더하여 앞서 살핀 'ㄴ/ㄹ+지·데·바'에서 견인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 형식에서 어미화한 'ㄴ/ㄹ지(데·바)'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이 'ㄴ/ㄹ+대로·만큼'을 'ㄴ/ㄹ대로(만큼)'으로 견인하여 붙여 쓰려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띄어쓰기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의존명사와 조사로서의 형식이 동일함은 물론이지만 'ㄴ/ㄹ+의존명사'라는 통사적 단위도 동일하므로 여기에 견인되어 이들을 붙여 써야 하는 것으로 짐작한 결과이다.[12]

지금까지의 생각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국어 문법화의 생성 기제는 반복되는 '연접'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필자의 추정이 무리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2.2. 역문법화

문법화가 '연접'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역문법화는 '단절'과 '분리'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단절'의 방식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2) 여기서 이러한 구조가 왜 '어미'로 진행되지 않고 조사로 진행되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견 우문일 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흥미로운 의문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이에 대해 답할 능력이 아직은 없다. 다만 '지·데·바' 등이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함에 비하여 '만큼, 대로' 등이 명사와 결합함으로써 어미가 아닌 의존명사로 진행한 것이라는 극히 현시안적인 생각만이 있을 따름이다.

www.kci.go.kr

(17) 가.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표준>
나. 그러나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유권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한 듯하다. 때문에 돈이 없어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안주호 2002: 35)

(18) 가. 제 딴에는 잘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한 일이다. <표준>
나. 그래서 딴에는 한때 울음이라는 제재의 걸작품을 만든답시고 놀고 있는 외손녀를 울려놓곤 그 장면을 찍다가 대판으로 달려드는 아내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가 <세종>

'때문'은 (17.가)의 <표준>에서 정의한 대로 명사나 대명사, 어미 '-기, -은, -는, -던' 뒤에 쓰여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뜻하는 의존명사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나)처럼 이런 형식들을 선행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안주호(2002) 등은 이 점에 주목하여 '때문'을 역문법화로 진행하는 언어 형식으로 인정하였다. (18)의 '딴'도 같은 이유에서 역문법화로 간주한다. 이로 볼 때 역문법화는 선행 언어 형식과 단절하여 자립도를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생성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한다. 다음의 '꾸러기'와 '님' 역시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9) 가. 장난꾸러기/욕심꾸러기/잠꾸러기/말썽꾸러기/걱정꾸러기 <표준>
나. 막돌이와 무돌이도 엄마 곁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꾸러기들이 되어갔습니다. <세종>

(20) 가. 사장님, 총장님, 공자님 <표준>
나. 어제 카페에 오신 그 님인가요?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19)의 '꾸러기'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가)로 사용되다가 선행하는 언어 형식과 단절하여 자립형식으로서 [장난이 많은 아이]를 뜻하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꾸러기 삼형제・꾸러기 합창단・꾸러기 천국' 등의 형식으로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문법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 역시 지칭어로서

www.kci.go.kr

의 접미사(가)가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2인칭 대명사(나)로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꾸러기'와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이들은 (17), (18)의 '때문, 딴'에 비하여 단절 정도가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 딴'은 불완전하나마 자립성을 보유한 의존명사의 상태에서 선행 언어 형식과 단절하였음에 비하여 위의 '꾸러기, 님'은 의존도가 강한 접미사의 상태에서 선행 언어 형식과 단절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연접하는 언어 형식을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역문법화를 생성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은 부류로 인정된다.

역문법화의 또 다른 생성 기제는 '분리'이다. 이는 다음에 제시한 '개・왕・초' 등에서 살펴지는 방식으로 연접하는 언어 형식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대신 분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1) 가. 초강대국, 초음속, 초만원 <표준>
나. 초 강추(한다), 초 감동(이다), 초 암울(하다), 초 짜증난다, 초 재수 없다. (이정복・양명희・박호관 2006: 75)

(22) 가. 왕개미, 왕게/ 왕겨, 왕모래/ 왕가뭄, 왕고집 <표준>
나. 왕 변녀(이다), 왕오랜만(이다), 왕기분좋았다. (이정복・양명희・박호관 2006: 76~77)

(23) 가. 개살구, 개꿀, 개떡/ 개꿈, 개죽음/ 개망나니, 개잡놈. <표준>
나. 나이 한 살 많다고 개 깝치다 맞은 형이 있었지, 개 나대다, 개 썩었다. (강희숙 2012: 81)

위의 용례들은 양영희(2016 ㄱ)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정복 외(2006), 강희숙(2012), 시정곤(2012) 등에서 언급했듯이 각 예문의 (나)는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언어 형식들이다.[13] 그런데 이들은 후행하는 언

13)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23)의 '개'보다 더 강한 의미로 '핵 강추, 핵 짜증' 등과 같은 어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역시 역문법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만하다.

www.kci.go.kr

어 형식과 분리시켜 자립성을 획득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유형들과 차이를 보인다. 즉 의존적이던 접두사에서 자립적인 부사로만 진행하였지, 후행하는 언어 형식을 단절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때문·딴·님' 등은 선행하는 언어 형식을 단절시켜 명사의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여타 성분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는 언어 형식이 되었지만 여기의 '초·왕·개' 등은 어떤 언어 형식을 그대로 후행하면서 다만 그들과 분리되는 방식으로 자립하였다는 의미이다.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역문법화 생성 기제는 앞서 살핀 문법화와 대비되는 특징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지금부터 살필 의미 변화의 유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2.3. 의미변화

문법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미가 문법적인 의미로 변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어휘 형태에서 문법 형태로 진행하는 언어 현상이 문법화

그런데 이보다 고려해야 할 점은, (21)-(23)에 대한 역문법화 인정 여부이다. 이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언중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문제시 될 이유가 없으나 일시적인 유행어로만 그친다면 역문법화의 예로 간주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일단 현재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역문법화의 한 예로 간주하기로 한다. 개념정의와 목록,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수용하기로 한 필자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왕 짜증(난다), 왕 변녀(이다)'의 '왕'을 부사뿐 아니라 관형사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들은 곧바로 '왕 짜증, 왕 변녀' 등과 같이 명사를 곧바로 후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필자가 이러한 사용 예를 모르지 않으나, 그럼에도 본고는 위와 같이 '~난다, ~이다'의 생략형으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왕'이라는 의미는 생략된 구까지를 고려할 때 온전한 의미가 전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즉 현재의 상태에서 접두사로서의 '왕'이 부사로서의 '왕'의 기능을 완전하게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정착되면 '왕 짜증, 왕 변녀'와 같은 관형사의 기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ww.kci.go.kr

라는 점을 상기하면 일견 당연시되는 변화이기도 하다. 그런데 역문법화에서는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여기서는 이런 차이에 주목하기로 한다.

2.3.1. 문법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문법화는 다음과 같이 어휘 형태가 문법 형태로 진행함에 따라 구체적이던 의미가 문법적인 의미로 변한다.

(24) 가. 집을 떠나 온 지 어연 3년이 지났다. :
- 의미: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나. 마을 사람들은 어느 말을 정말로 믿어야 옳은지 몰라서 멀거니 두 사람의 입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 의미: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25) 가.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일이 걸렸다.
- 의미: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
나. 저승사자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법 나이 사십이 넘었는데도 온갖 잡되고 못된 짓을 가리지 않고
- 의미: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이는 연결 어미]

앞에서 살핀 바 있는 위의 '지・데'는 의존명사(가)로서 불완전하나마 [동안・것・일] 등의 비교적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다가 어미(나)로 진행하면서는 [연결어미]라는 문법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문법화의 이런 특징은 이미 알려진 바이기도 하다.

2.3.2. 역문법화

필자가 분석・종합한 바에 따르면, 역문법화는 의미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역문법화를 겪기 전의 의미가 나름대로 분명

www.kci.go.kr

하여 단절이나 분리하여도 고유한 의미를 보유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6) 가.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
- 의미: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
나. 그러나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유권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한 듯하다. 때문에 돈이 없어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27) 가. 나는 내 나름대로 일을 하겠다.
의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 방식]
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만이지.

예컨대 (26)의 '때문'은 특정 언어 형식 즉 명사나 대명사 혹은 '-기, -은' 등에 연결되어 사용되다(가)가 이런 형식을 단절시켜 명사(나)로 진행하였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앞 언어 형식이 없어도 '때문'이라는 애초의 의미가 그대로 보전되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형식상 불완전하여 반드시 어떤 언어 형식을 선행해야 하는 '때문(가)'일지라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확실하므로 선행 언어 형식을 단절시키더라도 본래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 형식을 단절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27)의 '나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 주목하면 역문법화는 의미 변화보다 형식상의 자립과 독립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점은 다음에서 살필 유형에서도 찾아진다.

(28) 가. 초강대국, 초음속, 초만원
- 의미: '어떤 범위를 넘어선' 또는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나. 초 강추(한다), 초 감동(이다), 초 암울하다, 초 짜증난다.

(29) 가. 왕개미, 왕게/ 왕겨, 왕모래/ 왕가뭄, 왕고집

www.kci.go.kr

의미: ‘매우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나. 왕 변녀(이다), 왕오랜만(이다), 왕기분좋았다.

위의 ‘초·왕’은 어떤 특정 언어 형식에만 연결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의존적이지만 나름의 고유한 의미를 보유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연접하는 언어 형식과 분리될지라도 의미가 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 까닭에 형식의 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듯하다.

이쯤에서 문법화도 의존명사에서 출발한 경우가 있는데 어찌하여 이들의 의미는 변하였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만하다. 우선 다음의 예부터 살피기로 하자.

(30) 가.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
나.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
다. 책도 책 나름이지.

(31) 가. 집을 떠나온 지 3년이나 지났다.
나. 그 책을 다 읽은 데 3일이나 걸렸다.
다.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라.

위의 의문은 결국 (30)과 (31)의 밑줄 친 형식은 공히 의존명사인데 전자는 고유한 의미를 견지하면서 자립성을 강화시킨 역문법화로 진행함에 비하여 후자는 의미 변화를 수반하면서 문법화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로 통한다. 해결의 실마리는 두 유형의 의존명사에 선행하는 언어 형식에서 찾아진다. 즉 (30)의 유형들은 (대)명사 또는 명사형임에 비하여 (31)의 유형들은 관형사임이 주목되는데, 이는 전자의 의존명사가 후자의 그것에 비하여 형식상 자립성이 강하다는 사실과 함께 그런 만큼 전자의 의존명사가 나름의 고유한 의미를 보유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관형사는 반드시 후행하는 언어 형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명사류는 조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형사처럼 특정 언어 형식을 필요로

www.kci.go.kr

하지는 않는다. 관형사와 후행하는 언어 형식은 서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만 (대)명사는 독립적이라는 뜻이다. 전자의 형식적인 관계가 이러하므로 의미의 의존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면들을 역으로 이해하면 (30)의 의존명사는 (31)의 그것에 비하여 의미가 구체적이며 확실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우리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때문, 나름' 등은 고유한 의미를 견고하게 보유하여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그것의 의미를 그대로 견지할 수 있어서 역문법화로 진행하였지만 '지・데・바' 등은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의미를 보유한 까닭에 문법화로 진행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2항을 마무리하면서 필자가 문법화와 역문법화 생성 기제의 차이를 의미 변화 유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음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대로라면 그 차이는 (역)문법화 이전의 의미가 지닌 고유성과 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만하다. 의미의 자립도가 강하면 형식상 자립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언어 형식과 결합하여 형식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나 한다. 모든 언어 형식이 이 두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까닭에 이런 해석은 현재 (역)문법화에 해당하는 유형들에만 적용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논의를 마치면서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본고에서 인용한 『표준』과 『세종』의 차이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자는 언중들이 널리 사용하여 확인된 문법 범주(품사)를 등재하고 있음에 비하여 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제 막 언중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용례들까지는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자는 어떤 언어에 대해 공인된 기능을 알려주고 있음에 비하여 후자는 새로이 형성되어서 아직 공인되지 않은 기능을 알려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의가 관심을 보인 (역)문법화는 후자에 등재된 용례들에서 살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입장에서는 후자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www.kci.go.kr

3. 맺음말

본 논의는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역으로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점검해 보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에는 최근에 관찰되기 시작한 특정 언어 현상을 역문법화로 규정하면서 막연하게 문법화와 관련지으려는 태도를 반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내린 결론은 역문법화는 거시적으로 문법화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표 1]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차이

속성 / 과정	진행 방향	생성 기제	의미변화
문법화	다중적	연접	있음
역문법화	단선적	단절, 분리	없음

먼저 문법화는 대부분이 단선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하나의 문법 형태가 하나 이상의 문법화 연쇄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역문법화는 단선적인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문법화는 의존명사에서 조사와 어미로 동시에 분화하기도 하지만 역문법화는 접두사에서 부사로, 접미사에서 명사로만 진행한다는 것이다.

둘째, 문법화는 어떤 두 언어 형식이 연접하여 자주 사용되다 보니, 언중들이 이 두 형식을 단일한 단위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하지만 역문법화는 이와 반대로 자주 연결되는 두 언어 형식을 단절시키거나 분리시키는 데서 비롯한다는 점이다. 가령 문법화의 경우 'ㄴ/ㄹ+의존명사'의 형식으로 자주 사용되다보니 언중들은 이들을 단일한 단위로 인식하게 되어 결국 어미라는 단일한 단위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역문법화는 의존명사를 선행

www.kci.go.kr

언어 형식과 단절시키거나 접두(미)사 등을 선(후)행하는 언어 형식에서 분리시켜 자립적인 언어 형식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셋째, 문법화는 구체적이고 어휘적 의미에서 추상적이고 문법적인 의미로 변함에 비하여 역문법화는 이러한 의미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교를 통하여, 필자는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차이를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함으로써 각각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작은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동안 막연하게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동일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후자를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언어 현상으로만 규정하였는데, 이들은 '변화'라는 거시적 공통점을 기반으로 몇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소략하고 거칠게나마 이해하게 되었다는 데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희숙(2012), 「통신언어에 나타난 역문법화 현상 고찰」. 『한민족어문학』 61, 61-87면.

강희숙(2013), 『국어 정서법의 이해』, 역락.

고영근(1991),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구본관(1993), 「국어 파생접미사의 통사적 성격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8, 117-140면.

김문기(2007) 「매인풀이씨의 문법화 양상」, 『우리말 연구』 20, 203-225면.

김용경(2002), 「문법화의 단계성에 대한 고찰」, 『한글』 256, 45-68면.

노명희(2013), 「접미사 부류의 역문법화 양상」, 『반교어문연구』 35, 129-164면.

박승윤(1997), 「'밖에'의 문법화 현상」, 『언어』 22(1), 57-70면.

백낙천(2007), 「국어 문법화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39, 309-328면.

서형국(2010), 「어휘의 문법성 변화 원인을 찾아서」, 『한국어학』 48, 157-192면.

시정곤(2010), 「국어 명사의 문법화 과정에 나타난 특이 유형에 대하여」, 『언어연구』 26(1), 105-127면.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안주호(2002), 「한국어에서의 역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언어학』 10(4), 23-40면.

양영희(2016 ㄱ), 「현대국어의 역문법화 양상 고찰」, 『우리말글』 68, 37-68면.

양영희(2016 ㄴ), 「현대국어 (역)문법화 논의를 위한 몇 문제」, 『국어문학』 61, 5-49면.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승연(2010), 「특수조사 '-(이)나마'의 문법화 연구」, 『한국어학』 49, 293-317면.

이정민(2011), 「보조사 '마저', '조차'의 문법화 연구」, 『문창어문논집』 48, 205-229면.

www.kci.go.kr

이정애(1998) 「"가지고"의 문법화 과정」, 『언어』 23, 87-110면.
이정복 · 양명희 · 박호관(2006), 『인터넷 통신 언어과 청소년 언어문화』, 한국문화사.
이태영(1993),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임동훈(2006), 「'만큼, 처럼, 보다'가 격조사인가」, 『국어학』 48, 11-39면.
허재영(2002), 「문법화와 띄어쓰기 교육」, 『교육 한글』 14, 1-14면.
Hopper&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rde Muriel(2009), Degrammaticalization, Oxford University: 김진수 외 (2013) 『역문법화』 역락.

www.kci.go.kr

【Abstracts】

A Comparison of Grammaticalization and Degrammaticalization in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Yang Young-hee

The purpose of this discussion is to compare grammaticalization and degrammaticalization to identify the intrinsic nature of each phenomenon.

First of all, most grammaticalization processes progress in direction, but a grammatical form may cause a chain reaction. On the other hand, degrammaticalization shows a difference in that it only proceeds to the unilinear direction. Secondly, in grammaticalization, speakers use two language forms consecutively and recognize the two forms as a single unit. Contrastively, it is assumed that degrammaticalization results from the disconnection or separation of collocation. Thirdly, grammaticalization makes a language form transform from a concrete and lexical meaning to an abstract and grammatical meaning. There is, however, no such change in meaning in degrammaticalization.

Key words: Grammaticalization, Degrammaticalization, Direction of Progress, Meaning Change, Generative Mechanism, Liner Direction, Chain Reaction

이 논문은 2016년 5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7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